

공공도서관의 희망도서바로대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Bookstore Direct Loan Service for Users' Requests in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in Gyeonggi-do

이 윤 정 (Yun-Jung Lee)*

정 연 경 (Yeon-Kyoung Chung)**

목 차

- | | |
|--------------------|------------------------|
| 1. 서 론 | 4. 희망도서바로대출제 개선방안 및 제언 |
| 2. 지역서점 활성화와 바로대출제 | 5. 결 론 |
| 3. 설문 조사 및 분석 | |

초 록

경기도에서 시작된 바로대출제 서비스는 지역서점의 매출 상승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창의적인 신규 서비스로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용자의 희망도서 중복신청으로 인해 공공도서관 장서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서비스이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바로대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창의적 협력 방안인 바로대출제는 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대 및 도서관, 지역서점, 이용자 간의 지속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설명회 개최, 도서관구입비 대비 바로대출제 희망도서 구입비 연구를 통한 기획 수집, 바로대출제 관련 규정 제정, 독서문화서비스 확대, 건전한 이용자층 확대 및 다양한 지역서점 육성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local bookstore direct loan service for users' requests in public libraries, which was launched in Gyeonggi Province, is a creative new service that has led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through the rise in sales of local bookstores and high user satisfaction. However, it is a service in which positive and negative reactions coexist as negative opinions are presented on the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of public library books due to overlapping needs for desired books by users. Therefore, several ways of improving for local bookstore loan service in public libraries through a survey of public libraries, local bookstores, and user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The local bookstore direct loan service for users' requests, which is a creative cooperation plan between public libraries and local bookstores, needs to constantly improve its services by increasing book purchase cost, organizing a steering committee for continuous communication and collecting plans through research on the book purchase cost. Al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s services by enacting regulations expanding reading culture services expanding the number of healthy users and fostering various local bookstores.

키워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서비스, 희망도서바로대출제, 지역서점, 독서생태계
Public Libraries, Public Libraries Services, Local Bookstore Direct Loan Service for Users' Requests, Local Bookstore, Reading Ecosystem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 경민대학교 도서관운영과장
(elis91@hanmail.net / ISNI 0000 0004 9344 4021)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ykchung@ewha.ac.kr / ISNI 0000 0000 8261 5367)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2년 4월 18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5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5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2): 83-107,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2.083>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시민의 독서생태계를 조성하는 공공도서관, 서점, 출판사는 각각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먼저 공공도서관은 대규모 공공도서관의 건축과 시설 개선 등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도서관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는 추세로 이용자층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도서관의 선정과 견제기능이 점차 사라지고 도서관이 더 이상 출판의 다양함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정준민, 2018). 지역서점은 종이책 수요의 감소와 독서인구의 감소, 도서정가제의 불완전한 시행, 대형 온라인 서점의 등장으로 인한 매출 감소,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2015년 기준, 전국 서점 수는 2,116개로 2005년 대비 38.3% 감소하였으며 경기도 지역서점은 273개로 2005년 대비 40.4% 감소하였다(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16, 108-126). 출판사는 매체 환경의 디지털화에 따른 종이책 인구의 감소와 네트워크 확산과 모바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유럽에서 지속되어 왔다. 프랑스 문화부 미디어문화산업실 산하 도서독서국은 출판·독서·도서관을 함께 관할하며 도서전, 독서축제, 작가와의 만남 등을 개최하여 독자, 작가, 출판계, 서점계, 도서관계 인사들이 함께 만나 독서라는 주제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한주리, 2017).

독일 독서재단은 부모와 교사, 사서, 서점을 대상으로 독서 장려 기획을 전개해 왔다. 영국은 교육부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재정지원으로 북페스티벌, 도서전, 콘퍼런스 등 출판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독서생태계 위기를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지 않고, 각 주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각 주체 간의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 사례와 같이 지역 독서생태계 간의 전략적 제휴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3년 『출판및인쇄진흥법』을 제정하여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인 도서정가제를 시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에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증액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1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이 도서를 구입할 때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7년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 13개 시군에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에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계획과 도서관의 도서 구매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대부분의 도서 구입을 지역서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정가제와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은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독서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서관과 서점, 출판사가 서로 협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독서진흥을 이끄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2015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이하 바로대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바로대출제는 읽고 싶은 새 책을 동네서점에서 편리하게 빌려 읽고 반납된 책은 도서관 장서로 등록 후 활용하는 것이다. 바로대출제는 도서관 회원이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어 이용자 만족도 제고, 지역서점 활성화, 공공도서관의 이미지 제고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용인시는 바로대출제 시스템을 특허 등록하였고 바로대출제를 도입하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021년 현재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바로대출제에 관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와 서비스의 주체에 해당하는 도서관이나 서점의 관점이나 의견이 다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서점, 도서관의 입장에서 바로대출제에 관한 현황조사와 의견 청취를 통해서 바로대출제에 관한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에 관해 제시하고 바로대출제 관련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의 독서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독서생태계의 주체인 출판사, 지역서점, 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었다. 먼저 출

판사와 지역서점, 도서관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연구로 윤희운(2005)은 우리나라 지식문화 강화를 위해 생산주체인 출판계와 제도시장인 도서관의 전략적 제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도서정가판매제, 도서관 인프라 확충, 정부의 도서구입 및 도서관 공급제도, 법적 납본제도를 주장했다. 신종탁(2007)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독일 출판시장의 성공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제도적인 부분으로 서적상업협회, 도서정가법, 출판통계를 들었으며, 특히 독일 공공도서관에서는 학술서적을 폭넓게 구매함으로써 중소출판사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오재호, 조성한(2017)은 경기도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지역서점 발전방안을 제시했는데 서점의 도서관화를 확대하고 지역서점 인프라를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지역서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확대를 주장했다. 정윤희(2019)는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책문화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출판-도서관-독서’를 통합한 시스템을 만들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주리(2020)는 지자체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현황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의 독서생태계를 위한 지역서점의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였다. 노미령, 정경운(2020)은 지역 독립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와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이 서로 연동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독립서점의 체계적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완전 도서정가제 시행, 공급률의 공정한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 송인노(2021)는 희망도서바로대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서관 서비스 확장과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임을 강조하였고 바로대출제의 긍정과 부정 의견을 정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제도적 차원의 독서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도서정가제 시행, 각 주제별 일관된 정책과 유기적 연결, 서점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출판문화진흥법 개정, 지역서점 인증제, 지역서점 우선구매제, 바로대출제 등으로 다양하며, 점점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독서생태계의 주체인 출판사, 지역서점, 도서관의 자발적 차원의 협력 사례에 관한 연구로 이용재(2009)는 각 도시의 '한 책'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공도서관, 작가, 출판사 및 서점은 '한 책' 운영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도서 홍보 및 지원, 작가의 강연 및 각종 프로그램 참여, 온·오프라인 독서토론 공간의 개설 등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주리(2017)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국내·외의 독서운동을 살펴보았으며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민간 자원활동 인력의 참여를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휴가일수 보상과 인사평정 반영 등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민(2018)은 출판 플랫폼으로서 도서관의 기능을 제안하면서 도서관은 독립출판물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스스로 독립출판물을 만들어야 하며 구독형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도서관 내에 학습공동체를 조성하여 학습공동체 스스로 새로운 출판을 시도하게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동연, 유승호(2020)는 독립서점과 지역의 연계는 지역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고 도서관 등 책을 매개

로 다양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의 네트워크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도서관과 출판사, 서점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가 있다. Coffman(1998)은 서점이 도서관보다 책도 많고 고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도서관보다 작은 인력 규모로 운영하며, 도서관보다 운영시간이 길다고 주장하며 서점의 비용효율적인 경영을 도서관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Mercieca(2000)는 도서관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해왔고 이를 통해 서비스와 자원의 범위를 강화했지만, 전통적인 출판사는 최근에서야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저작권 소유자인 출판사가 콘텐츠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도서관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Fister(2008)는 서점의 쇠퇴와 도서관의 이용자 증가를 설명하며 서점이 도서관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서관은 강력한 독서문화를 만들었고 신간 서적을 쉽게 이용하게 하며 자관에 책이 없더라도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책을 수집하고 독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게 한다고 하였다. 독자가 책을 선택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독자의 추천이므로 책을 독점의 개념이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는 도서관과 지역서점, 출판사의 상상력, 협업, 기술 혁신으로 고착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서관과 서점의 협력관계 파트너십을 강조한 연구로, Rockman(2001)은 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 대학도서관과 캠퍼스 서점 간의 파트너십을 소개하면서 대학도

서관과 서점은 협업하여 교수의 연구 및 학습 기여도를 증진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ahr & Bolton(2002)은 한도시 한책 사업에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출판사, 서점 등 지역 커뮤니티가 협력한 사례를 소개하며 도서관과 출판사, 지역서점 간의 이러한 협업은 개인의 노력을 줄이고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되며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rthur & Sieck(2015)는 더 많은 도서관과 출판사가 워크숍이나 웹 세미나, 콘퍼런스 세션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대학도서관과 Taylor & Francis 출판사의 공동 워크숍과 출판 행사를 소개하면서 두 기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도서관, 학술출판사 간의 광범위한 컨소시엄을 소개한 연구로 Kohl & Sanville(2006)는 대학도서관의 컨소시엄을 통해 출판사의 인쇄 구독료와 합리적인 추가 요금정산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널 문헌을 상당히 증가시켰고 비용효율성 개선에 기여했다고 하였다. Ward & Lavoie(2016)는 캐나다 연구지식네트워크와 Erudit컨소시엄의 파트너십을 소개하였다. 도서관에서 학술출판사에 재정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였고 대학도서관과 학술출판사가 협력하여 오픈엑세스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ell(2017)은 Temple University의 '교과서 경제성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도서관과 서점이 협력하기 위해 대화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서로의 운영, 서비스, 기능 및 시스템에 대해 학습하고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도서관의 이러한 노력은 대학과 지역사회에 그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Kirschner & Miller(2021)는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대학도서관이 교내서점과 협력하여 교과서를 전자책으로 서비스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는데, 교수진에게 교과서를 소개하고 도서관 장서를 강좌 자료로 활용하도록 홍보하여 도서관 장서와 서비스에 대한 교수의 인식 제고 및 향후 상호작용을 장려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외 연구자들은 공공도서관, 출판사, 서점이 자발적으로 적극 협력할 것과 제도적 차원에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과 서점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다양한 컨소시엄을 소개하면서 상상력, 기술, 협업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1.3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바로대출제의 현황과 장단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바로대출제와 관련된 3개 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3개 주체는 바로대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공공도서관, 경기도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이용자이다. 조사는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진행하였다.

바로대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2022년 1월 11일에 경기도 도서관정책과를 통해 확보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서점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바로대출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바로대출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설문조사 QR코드를 생성하여 지역서

점에 보낸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먼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바로대출제를 시행하고 있는 11개 시군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담당 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바로대출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 시군은 가평군,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이다. 설문조사는 바로대출제 운영현황, 만족도, 개선사항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11개 시군에서 바로대출제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서점의 수는 시군별로 최소 1개에서 최대 25개까지 편차가 컸으며 지역 서점의 규모 역시 매우 차이가 컸다. 따라서 108개의 지역서점 중 규모가 작아서 바로대출제 담당자가 없다고 하거나 설문조사를 거부한 47개 지역서점을 제외한 61개 지역서점에 설문을 보내어 31개 지역서점으로부터 설문을 회수하였다. 이들 지역서점의 분포는 오산시가 1개, 가평군, 광명시, 안산시, 포천시, 하남시가 각각 2개씩,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용인시, 평택시가 각각 4개씩의 지역서점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서점용 설문지는 바로대출제 운영현황, 만족도, 개선사항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바로대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11곳을 통해 경기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바로대출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 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용자용 설문지는 인구통계, 도서관 이용 경험, 바로대출제 인지 정도, 바로대출제 이용 경험, 만족도, 개선사항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표 1>과 같이 설문지 문항과 문항 수는 3개 주체에 따라 다르게 구성하였으며, 객관식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분석은 데이터 코딩을 거쳐 MS Office Excel 2016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이용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보완하였다.

<표 1> 바로대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 개요

설문명	공공도서관의 희망도서바로대출제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지					
조사대상	도서관용		서점용		이용자용	
조사기간	2022.2. ~ 2022.3.					
조사방법	KSDC 온라인 조사					
문항 및 문항수	문항	문항수	문항	문항수	문항	문항수
	응답자 현황	1	응답자 현황	1	인구통계	4
	바로대출제 현황	14	바로대출제 현황	1	도서관 이용경험	3
	만족도	3	만족도	3	바로대출제 인지	1
	개선점	2	개선점	2	바로대출제 이용경험	2
	합계	20	합계	7	만족도	5
					개선점	2
합계		합계		합계	17	
응답형식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5단계					
응답자수	11		31		77	

2. 지역서점 활성화와 바로대출제

〈표 2〉와 같으며, 13개 지역에서 제정되었다.

2.1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 현황은

〈표 2〉와 같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에는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조항이나 지역서점과의 우선 조달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과

〈표 2〉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 조례 현황

번호	조례명(시행일자)	조례내용	
1	고양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3.30)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2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2021.01.01)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3	광명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22)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8조(구성)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회의·운영)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업무의 위탁)
4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9.29)	제5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인증) 제7조(인증기준) 제8조(인증절차)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인증 취소 및 제한)	제11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12조(구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회의·운영) 제15조(수당 등) 제16조(협력체계 구축)
5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04.06)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구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운영)
6	동두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0.07)	제6조(지원계획) 제7조(지역서점 지원)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구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회의·운영) 제14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7	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12)	제4조(지원계획) 제5조(지원사업)	제6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8	안양시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31)	제5조(마을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마을서점 지원) 제7조(마을서점 인증) 제8조(인증기준)	제9조(인증절차)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제12조(마을서점과의 수의계약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9	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17)	제5조(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구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회의·운영)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10	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7.02)	제4조(지원계획) 제5조(지원사업)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구성)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운영)
11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2.29)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12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18)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13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4.06)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인증) 제7조(인증기준)	제8조(인증절차)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인증 취소 및 제한) 제11조(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서유통업체를 상대로 수익계약을 통해 자료구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 공공도서관은 지역서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는데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시군뿐 아니라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했으며, 도비 8억, 시군비 19억 등 약 27억의 예산을 지원하였다(경기도, 2021, 18).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료납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무자격업체나 실제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페이지컴퍼니를 통한 구입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였다(강은영, 2016). 이를 방지하고자 지역서점 인증제 관련 조항을 광주시, 안양시, 화성시에서 포함하였는데 인증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관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업 등록 업체, 사용면적의 50% 이상 오프라인 방문매장을 운영하며,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 관내 시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도 도서관은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통해 지역서점과의 조달계약, 우선구매, 수익계약을 시행 중이며, 인증서점을 대상으로 바로대출제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2.2 바로대출제

바로대출제는 도서관에 희망도서 구입을 신청하거나 소장 도서를 빌려 읽고 반납하는 기존의 도서대출시스템과 달리 시민이 서점에서 새 책을 무료로 빌려 본 뒤 서점에 반납하면 지자체가 책값을 서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납된 책은 공공도서관으로 보내져 도서관 장서가 된다. 바로대출제는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신청 서점을 모집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바로대출제 시스템을 도입한 후 진행하게 된다. 이용 방법은 관내 공공도서관에 회원 등록한 이용자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희망도서바로대출'을 신청한 후, 서점으로부터 수신한 대출 안내 문자를 가지고 서점을 방문하여 대출할 수 있다.

바로대출제를 최초로 시작한 용인시는 2015년 6월부터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바로대출제를 시범 실시한 뒤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아 2016년부터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2017년에는 행정서비스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2017년 한 해 동안은 13,686명의 시민이 지역서점에서 총 55,460권의 책을 대출하였다(용인시 공시자료, 2017). 경기도 시군에서 바로대출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표 3>과 같다.

2017년에 용인시는 시민이 빌린 책 구입대금으로 6억4천만원을 지역서점에 지급했다. 협약을 맺은 동네서점들은 바로대출제 시행 뒤 평균 10% 이상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기흥구 동백문고와 수지구 수지문고는 매출이 30% 이상 올랐고, 골목안 작은 책방들도 5~10%가량 매출이 늘었다고 용인시는 밝혔다(박경만, 2017.2.3.).

바로대출제는 '구청이 소비자들의 수요를 잘 파악한 것이며 굉장히 창의적인 제도(김찬호, 2020)'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바로대출제가 어렵사리 싹트고 있는 도서관 문화를 왜곡시킬 수 있다(신남희, 2020)'는 부정적인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바로대출제의 서비스 당사자인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의견과 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로대출제의 현황과 인식, 만족도, 긍정적·부정적 요인,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표 3〉 바로대출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 시군

〈2022년 1월 11일 기준〉

번호	시군명	시작	통합관리시스템	지역서점	신청권수
1	가평군	2020	구축(2020)	4	1인 3권
2	광명시	2021	구축(2021)	9	1인 3권
3	부천시	2017	구축(2017)	10	1인 5권
4	수원시	2017	구축(2017)	21	1인 2권
5	시흥시	2018	구축(2018)	11	1인 4권
6	안산시	2018	구축(2018)	7	1인 5권
7	오산시	2016	미구축(수기 처리)	1	1인 2권
8	용인시	2015	구축(2016)	25	1인 5권
9	평택시	2018	구축(2018)	10	1인 3권
10	포천시	2019	구축(2019)	6	1인 5권
11	하남시	2018	구축(2018)	4	1인 5권
합계				108	

3. 설문 조사 및 분석

3.1 도서관 대상 설문 분석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희망도서구입비, 바로대출구입비 금액과 비율은 〈표 4〉와 같다. 11개 조사대상 공공도서관 중 5개는 도서구입비 항목을 상세히 구분하지 않고 있었고 정확한 금액을 제시한 6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대비 바로대출제 금액의 비율은 12.2%~32.8%로 도서관 간 편차가 컸다.

6개 도서관의 바로대출제 대출자수, 대출권수, 구입권수와 선정 제외 권수는 〈표 5〉와 같다. 바로대출제 대출자수는 도서관 내부 사정으로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가평군을 제외하고, 221명에서 41,428명으로 도서관 간 편차가 컸다. 바로대출제를 처음 시작한 용인시는 대출자수 41,428명 대출권수 59,563권, 구입권수 59,529권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바로대출제 선정 제외 권수는 32권에서 1,475권으로 도서관간 편차가 컸는데, 수원시의 경우 관내 공공도서관이 25개로 가장

〈표 4〉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희망도서구입: 바로대출구입비 비율

번호	시군	도서구입비(원)	희망도서 구입		바로대출제 구입		희망도서+바로대출제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1	A	1,133,800,000	343,731,520	30.3	346,896,420	30.6	690,627,970	60.9
2	B	683,000,000	148,000,000	21.7	83,000,000	12.2	231,000,022	33.8
3	C	2,590,337,200	560,624,970	21.6	849,962,990	32.8	1,410,587,982	54.5
4	D	314,000,000	71,000,000	22.6	50,000,000	15.9	121,000,023	38.5
5	E	252,459,620	92,818,830	36.8	31,592,960	12.5	124,411,827	49.3
6	F	549,400,000	61,000,000	11.1	67,000,000	12.2	128,000,011	23.3

〈표 5〉 바로대출제 대출자수, 대출권수, 구입권수, 선정 제외 권수

번호	시군명	공공도서관개수 (2021. 6. 기준)	대출자수(명)	대출권수(권)	구입권수(권)	선정제외권(권)
1	가평군	4	-	5,728	-	-
2	광명시	6	2,178	3,302	3,302	0
3	부천시	15	27,220	46,304	46,304	876
4	수원시	25	4,265	21,737	22,768	1,475
5	시흥시	12	3,740	5,412	5,412	165
6	안산시	15	4,546	7,002	7,163	709
7	오산시	7	221	421	392	32
8	용인시	18	41,428	59,563	59,529	34
9	평택시	10	2,721	3,204	5,594	760
10	포천시	7	1,266	2,023	2,149	49
11	하남시	6	3,662	4,254	4,254	369

규모가 큰 시군이라 선정 제외 권수도 많았다.

바로대출제 관련 규정의 존재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4개 도서관은 관련 규정으로 '지역서점활성화관련규정', '바로대출제 규정', '희망도서바로제공관련규정', '장서개발지침'을 관련 규정이라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시군은 바로대출제 관련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며 도서관 운영계획에 포함한 업무이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바로대출제 선정 기준은 희망도서 선정 기준과 동일하다고 응답하였다.

바로대출제의 선정 제외 사유는 〈표 6〉과 같이 도서의 형태, 금액, 출판연도, 소장도서, 품질도서와 같이 명확한 사유가 있으며 논란의 소지, 영리, 종교, 정치, 유사도서, 주식 등 불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담당자는 〈표 7〉과 같이 81.81%가 만족하는 편이었다.

〈표 8〉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담당자가 생각하는 바로대출제의 긍정적 요인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만족도 증진과 이용자 서비스 확대였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담당자가 생각하는 바로대출제의 부정적 요인은 〈표 9〉와 같이 복본이나 베스트셀러 위주의 도서 구입으로 인한 장서의 질 저하를 가장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도서관의 역할 축소, 본인이 저자인 책을 신청하는 등의 악용 사례 발생 등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가족을 동원하는 등의 일부 이용자의 독점 이용'과 '첫 이용자 이후 반납, 정리 작업 후 도서관에 입수되기까지의 시간 지연의 불편함'을 들었다.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담당자가 제안한 바로대출제의 개선사항은 〈표 10〉과 같이 바로대출제 규정 수립, 시스템 개선이었다. 예산 확대, 타 규정과의 연계, 홍보 강화, 서점과 이용자의 의견 수립, 회원 자격 검토 등도 포함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도서관의 희망도서 구입비율과 정기 수서되는 도서구입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바로대출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즉, 공공도서관 담당자는 홍보를 강화해서 바로대출제의 새

〈표 6〉 바로대출제 선정제외 사유(복수 응답)

선정 제외 사유	인원 (명)	비율 (%)	선정 제외 사유	인원 (명)	비율 (%)
훼손 및 독점 이용의 우려가 있는 각종 수험서, 자격서, 문제집, 교과서, 심화단계 전문서, 대학교재	11	6.5	참고도서류(사전, 지도 등)	7	4.1
고가의 도서	10	5.9	도록, 화보집, 악보류	6	3.6
공공도서관 자료로 부적합한 자료(미풍양속, 정서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도서와 19세 이상 이용가능한 선정적인 자료 등)	10	5.9	청소년 정서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	6	3.6
도서의 형태가 공공도서관 소장도서로서 부적합한 도서(스프링도서, 컬러링북, 쓰기익힘책, 퍼즐북, 스티커북, 팝업북, 워크북, 병풍책, 스티커)	10	5.9	사회적 논란이 있는 도서(역사적 사실 왜곡, 물의를 일으킨 저자의 저작 등)	5	3.0
비도서(DVD, CD, 오디오북, 전자책 등)	10	5.9	영리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개인 및 출판사 등의 영리)	5	3.0
도서관에 소장 중인 도서(구입, 정리 중인 자료 포함)	9	5.3	종교자료(개인신앙자료, 성경연구 등), 특정종교의 포교를 위한 종교도서	5	3.0
시리즈 및 전집류	9	5.3	해외원서	5	3.0
정기간행물, 잡지	9	5.3	리커버리북(본문 내용 변경이 없이 이미 출간된 책의 표지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어 다시 출간하는 책)	3	1.7
논문류	8	4.7	정치 목적의 신청자료	3	1.7
웹툰, 만화	8	4.7	특정주제의 도서를 월 2권 이상 중복 신청할 경우	3	1.7
장르문학(판타지, 무협지, 로맨스, 라이트노벨, 그래픽노블, 게임서, 인터넷 소설)	8	4.7	유사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경우	2	1.1
출판년도가 오래된 도서	8	4.7	주식, 경매 등 투기적 성향의 경제 도서	1	0.5
정상 구입이 불가능한 도서(품질, 절판, 미출간, 주문제작도서, 온라인 전용 판매 등)	8	4.7	이용이 극히 특정인에 한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	1	0.5
합계				170	100.0

〈표 7〉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만족도

만족도	인원(명)	비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	0.00
만족하지 않는다.	0	0.00
보통이다.	2	18.18
만족한다.	8	72.72
매우 만족한다.	1	9.09
합계	11	99.99

〈표 8〉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긍정적 요인(복수응답)

긍정적 요인	인원(명)	비율(%)
지역서점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9	29.03
입수시간 단축 등의 시민 독서편의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인다.	8	25.81
도서관 이용자서비스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	6	19.35
도서관의 호감도를 높이는 등 도서관 이미지를 제고한다.	4	12.90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한다.	3	9.68
지자체에 서비스 확대 및 예산 확대를 촉구할 수 있다.	1	3.23
바로대출제 관련 신문기사 등을 통해 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다.	0	0.00
합계	31	100.00

〈표 9〉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부정적 요인(복수 응답)

부정적 요인	인원(명)	비율(%)
이용자의 중복 희망도서 신청으로 인해 복본 증대, 베스트셀러로 편중 등, 도서관 장서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	10	38.46
새 책을 대하는 장소가 도서관이 아니라 서점이라 도서관의 역할을 축소한다.	4	15.38
본인이 저자인 책을 신청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	4	15.38
지역서점에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출판사, 서점, 유통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출판문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11.55
어렵게 구축한 도서관 문화를 왜곡시킬 수 있다.	2	7.69
기타	2	7.69
바로대출제는 양서로 표현되는 전문서적, 학술서적의 출판을 담보하지 못하고 좋은 책의 안정적 소비자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1	3.85
합계	26	100.00

〈표 10〉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개선사항(복수 응답)

개선사항	인원(명)	비율(%)
바로대출제 서비스 규정 수립-선정 제외 기준, 중복허용도서권수 조정 등	7	28.00
바로대출제 시스템 개선	7	28.00
바로대출제 예산 확대	2	8.00
대출 규정과의 상충 개선	2	8.00
홍보 강화	2	8.00
서점 현장 방문을 통한 서점과 이용자 의견 청취	2	8.00
바로대출제 이용 가능한 회원 자격 강화	1	4.00
바로대출제와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한 활동과 병행	1	4.00
기타	1	4.00
대출책 수 확대	0	0.0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항목에 바로대출제 추가	0	0.00
바로대출제 회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0	0.00
합계	25	100.00

로운 이용자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바로대출제 자체를 확대하거나 바로대출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정리하면, 바로대출제는 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도서관 장서를 관리하는 사서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희망도서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이용자의 의견이 장서에 반영되지만, 장서 구성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분야로만 편중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또한, 도서관이라는 공공기관과 지역서점이라는 개인사업자간의 협력 사업임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사항도 문제점이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서점을 통제하여 오픈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와 같은 것이었다. 또한, 지역서점 간의 바로대출제 대

출건수도 차이가 있어 바로대출제서비스의 근본적인 취지와 달리 진행된다는 우려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용자 만족도를 위하여 단순히 바로대출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3.2 지역서점 대상 설문 분석

설문에 참여한 지역서점의 만족도는 <표 11>과 같이 80.64%가 만족하는 편이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의견이 6.45%이었는데 심층면담 결과, ‘매출 증가보다는 오히려 부수적 업무가 증가하여 업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역서점이 판단하는 바로대출제의 긍정적 요인은 <표 12>와 같이 이용자 증가, 매출 상승, 홍보 효과이었다. 기타 의견은 “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함에 따른 매출 증대의 효과이며 그 외

<표 11> 지역서점의 바로대출제의 만족도

만족도	인원(명)	비율(%)
전혀만족하지 않는다.	2	6.45
만족하지 않는다.	1	3.23
보통이다.	3	9.68
만족한다.	9	29.03
매우 만족한다.	16	51.61
합계	31	100.00

<표 12> 지역서점의 바로대출제 긍정적 요인(복수 응답)

긍정적 요인	인원(명)	비율(%)
바로대출제로 인해 서점을 처음 방문하는 손님이 늘었다.	24	48.00
이용자 증가로 인해 매출이 상승했다.	13	26.00
다른 책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서점 홍보 효과가 있었다.	11	22.00
기타	2	4.00
합계	50	100.00

의 추가적인 서점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다”와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오프라인 이용자는 줄었다”라는 것이었다.

지역서점이 판단하는 바로대출제의 부정적 요인은 <표 13>과 같이 예산 조기 소진과 선정 제외 기준의 엄격성이었다. 또한 대도시에 위치한 지역서점과 그렇지 않은 지역서점 간의 매출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서점 내에 등록된 PC 외에 신청 도서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렵다”, “서점측에서 납품을 하기 위해 연체자를 관리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신청 후 책을 취소하거나 찾아가지 않은 경우 남겨진 책에 대한 처리가 어렵다”, “특정 종교 관련 도서가 많아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로 확인되었다.

지역서점이 판단하는 바로대출제 개선사항은 <표 14>와 같이 예산확대, 선정 제외 기준 완화, 홍보 확대, 규정 수립 순이며, 기타 의견은 “바로대출제 선정 기준을 강화해서 명확하게 선정 제외 도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와 “1인당 신청권수가 줄어서 아쉽다” 였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바로대출제는 지역서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제도이며 지역서점과 도서관의 공생이 가능한 제도이므로 앞으로 홍보와 예산을 확대하고 도서 선정 기준을 완화해서 이용을 확대해 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점입장에서는 그냥 납품하면 그만이지만 정작 납품된 도서를 구비하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과연 도서관에 비치하고 싶은 도서들일까 고민된다”는 의견과 “도서관 사서의 의견

<표 13> 지역서점의 바로대출제 부정적 요인(복수 응답)

부정적 요인	인원(명)	비율(%)
예산이 조기 소진된다.	17	36.17
도서관의 바로대출제 선정 제외 기준이 너무 많다.	12	25.53
서점간 매출차이가 발생한다.	10	21.28
기타	5	10.64
시스템 사용이 어렵다.	2	4.26
이용자가 신청한 도서가 구하기 어렵다.	1	2.13
합계	47	100.01

<표 14> 지역서점의 바로대출제 개선사항(복수 응답)

개선사항	인원(명)	비율(%)
바로대출제 예산 확대	17	27.87
바로대출제 선정 제외 기준 완화	14	22.95
홍보 확대	12	19.67
바로대출제 서비스 규정 수립(서점별 매출한도 지정, 이용자 대출권수 등)	11	18.03
바로대출제 시스템 개선	3	4.92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 증대 필요	2	3.28
기타	2	3.28
합계	61	100.00

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국가의 세금이 지출되는 사업이므로 공익적인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바로대출제는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어 호응이 높은 제도이지만 지역서점주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이용고객에 한해서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과 “바로

대출제 취지와는 달리 인구밀집지역은 많은 대출권수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서점은 대출권수가 적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의견도 나와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3 바로대출제 이용자 대상 설문 분석

설문응답자 특성은 <표 15>와 같이 11개 지

<표 15> 설문응답자 특성

	특성	빈도(명)	비율(%)
지역	가평군	24	31.17
	광명시	6	7.79
	부천시	3	3.90
	수원시	2	2.60
	시흥시	4	5.20
	안산시	8	10.39
	오산시	3	3.90
	용인시	23	29.87
	평택시	2	2.60
	포천시	1	1.30
	하남시	1	1.30
	합계	77	100.00
성별	남자	18	23.37
	여자	59	76.63
	합계	77	100.00
연령	10대	6	7.79
	20~30대	22	28.57
	40~50대	46	59.74
	60대 이상	3	3.90
	합계	77	100.00
이용자직업	전문직	8	10.39
	경영/관리/사무직	11	14.29
	자영업	7	9.09
	판매/서비스직	8	10.39
	생산기능직	0	0.00
	농림/수산/축산업	0	0.00
	전업주부	20	25.97
	학생	7	9.09
	사서/교사	7	9.09
	프리랜서	7	9.09
	기타	2	2.60
	합계	77	100.00

역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가평균과 용인시가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대는 40~50대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군은 전업주부가 많았다.

도서관 이용횟수는 <표 16>과 같이 일주일에

2~3회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회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았다. 바로대출제 이용횟수는 한 달에 1회가 가장 많았다. 바로대출제 이용자가 도서관에 방문하는 이유는 자료대출 및 반납과 희망도서 신청이 56.88%인

<표 16> 도서관 이용 경험과 바로대출제 이용 경험(복수 응답)

이용 경험	빈도(명)	비율(%)	
도서관 이용횟수	거의 매일(일주일 4회 이상)	7	9.09
	일주일에 2~3회	21	27.27
	일주일에 1회	19	24.67
	한 달에 1회	19	24.67
	석 달에 1회	7	9.09
	일 년에 1회	1	1.29
	거의 이용하지 않음	3	3.89
	합계	77	99.97
바로대출제 이용 횟수	일주일에 1회	10	12.99
	한 달에 1회	42	54.55
	석 달에 1회	13	16.88
	일 년에 1회	5	6.49
	거의 이용하지 않음	7	9.09
	합계	77	100.00
도서관 방문 이유	자료 대출 및 반납	65	38.92
	희망도서 신청	30	17.96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	19	11.38
	도서관 이용 교육 참여	12	7.19
	자료 조사 및 이용	12	7.19
	문화프로그램 이용	11	6.59
	학습공간 이용	9	5.39
	휴식장소 이용	6	3.59
	멀티미디어실 이용	2	1.20
	편의시설(매점 등) 이용	1	0.60
합계	167	100.01	
바로대출제 이용 주제	총류	8	4.94
	철학	6	3.70
	종교	3	1.85
	사회과학	26	16.05
	자연과학	14	8.64
	기술과학	8	4.94
	예술	12	7.41
	언어	16	9.88
	문학	51	31.48
	역사	18	11.11
	합계	162	100.00

것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 자층임을 알 수 있었다. 바로대출제가 주로 이 용된 주제는 문학 분야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는 사회과학 분야의 도서가 차지하여 이 두 영역의 이용이 47.53%에 해당하였다.

이용자가 느끼는 바로대출제 이용 후 공공도 서관 이용 감소는 20%에 그쳤으며 바로대출제 를 인지하게 된 경로는 <표 17>과 같이 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 배너와 포스터가 40%로 가 장 컸고 지인 소개가 20.69%로 조사되었다. 바 로대출제는 도서관 홈페이지나 배너, 포스터 등 공식적인 홍보 방법뿐 아니라 바로대출제 이 용자의 소개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바로대출제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표 18>과 같이 89.60%가 만족하는 편이었다. 특히, ‘매우 만족한다’의 비율이 70.12%로 매우 높았 다. 바로대출제의 계속이용여부는 94.80%, 지 인에게 추천여부는 94.80%에 이를 정도로 바로 대출제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표시하였다.

이용자가 생각하는 바로대출제의 긍정적 요 인은 <표 19>와 같이 신속성, 접근성, 편리성,

창의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생각하는 바로대출제의 부정적 요 인은 <표 20>과 같이 예산의 소진, 선정 기준의 엄격함, 짧은 대출기간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는 “학습만화, 복본, 로맨스 소설류 제한 이 어렵다”라는 의견과 “신청 권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과 1인당 신청권수 2권이 너무 적다” 등 의 의견이 있었다.

이용자가 생각하는 바로대출제의 개선사항 은 <표 21>과 같이 예산 증대, 대출기간 증대 및 한도 권수 증대가 가장 많이 제시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선정 제외 기준 완화, 신청 절차 간 소화 순으로 나타났다.

바로대출제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 도가 높은 제도이지만 이용자는 예산을 확대하 고 도서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권수와 대 출기간을 확대하기를 원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서점도 도서관도 둘 다 살리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작가와 만나는 북콘서트나 독서모임 등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지역경 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 앞 큰 서점

<표 17> 이용자의 바로대출제 인지 경로(복수 응답)

인지 경로	인원(명)	비율(%)
도서관 홈페이지	27	23.28
도서관 배너, 포스터	25	21.55
서점 배너, 포스터	24	20.69
지인 소개	24	20.69
서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4	3.45
서점 홈페이지	4	3.45
서점 문자	3	2.59
기타	2	1.72
도서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1	0.86
도서관 문자	1	0.86
신문기사	1	0.86
합계	116	100.00

〈표 18〉 이용자의 바로대출제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빈도(명)	비율(%)
이용자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2.60
	만족하지 않는다	1	1.30
	보통이다	5	6.50
	만족한다	15	19.48
	매우 만족한다	54	70.12
	합계	77	100.00
계속 이용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그렇지않다	2	2.60
	보통이다	2	2.60
	그렇다	10	12.98
	매우 그렇다	63	81.82
	합계	77	100.00
추천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0	0.00
	그렇지않다	0	0.00
	보통이다	4	5.20
	그렇다	10	13.00
	매우 그렇다	63	81.80
	합계	77	100.00

〈표 19〉 이용자의 바로대출제 긍정적 요인(복수 응답)

긍정적 요인	인원(명)	비율(%)
신속성-희망도서 신청 후 한달 가량 걸리던 대기기간이 7일로 감소하고 도서 정리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55	31.07
접근성-도서관까지 가지 않고도 집 근처의 지역서점을 이용하므로 접근성이 좋다	49	27.68
편리성-바로대출제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책이 구해지면 문자가 오므로 편리하다	45	25.42
창의성-공유 경제인 책을 함께 활용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 서비스이다	21	11.86
호감도 - 도서관 이미지를 제고한다	5	2.82
기타	2	1.13
합계	177	99.98

〈표 20〉 이용자의 바로대출제 부정적 요인(복수 응답)

부정적 요인	인원(명)	비율(%)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다	46	41.82
발행연도가 1년 이상 지났거나 금액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하거나 원서신청 불가 등 선정 규정이 엄격하다	33	30.00
대출기간(연장 포함 3주)이 짧다	13	11.82
바로대출제 신청이 번거롭다	9	8.18
기타	8	7.27
시스템 오류가 잦다	1	0.91
합계	110	100.00

〈표 21〉 이용자의 바로대출제 개선사항(복수 응답)

개선사항	인원(명)	비율(%)
예산 증대	47	38.21
대출기간 증대, 한도 권수 증대	41	33.33
선정 제외 기준 재검토	19	15.45
신청절차 간소화	13	10.57
시스템 개선	3	2.44
기타	0	0.00
합계	123	100.00

보다 일부러 좀 멀리 작은 서점을 이용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즉, 북콘서트와 같은 문화 행사를 도서관에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의견과 작은 서점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간혹 “대출은 서점에서, 반납은 도서관에서 하길 원한다”나 “택배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다소 무리한 의견도 존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바로대출제 서비스의 취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서비스 범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희망도서바로대출제 개선방안 및 제언

바로대출제에 대한 공공도서관 바로대출제 담당자의 만족도는 81.81%가 만족하는 편이었다. 바로대출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서점의 만족도는 80.64%가 만족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보다 지역서점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의 비율이 ‘만족한다’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이용자의 만족도는 89.60%가 만족하는 편이고 이용자의 계속이용 여부는 94.80%가 긍정적 의견을, 지인에게 추천 여부는 94.80%가 긍정적 의견을 표시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담당자나 지역

서점의 담당자보다 바로대출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만족보다는 불만족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대출제를 시행하는 공공도서관은 서비스에 만족하는 편이지만 증폭도서 구입과 한정된 예산 등의 문제로 무한대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지역서점은 바로대출제 서비스에 만족하지만, 소규모 영세 상인이 감당하기에 부수적 업무가 많고 지역서점 간 매출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바로대출제를 이용해 본 이용자는 이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며 서비스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한 바로대출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4.1 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대

도서관과 서점, 이용자 3주체는 모두 바로대출제 관련 예산 확대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현재 바로대출제 예산은 도서관에 따라 전체 예산의 12~32%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서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예산 대비 바로대출제의 예산 비중을 높이는 것

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의 전체 자료구입비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통해 바로대출제 구입 예산을 확대하고 나아가 도서관, 출판사, 서점의 상생 및 출판문화 진흥과 독서생태계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4.2 공공도서관 바로대출제 운영위원회 구성

설문조사 결과 도서관 측에서는 서점과 이용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바로대출제의 최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이용자 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바로대출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먼저 도서관과 지역서점, 이용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11개 공공도서관의 바로대출제 담당자와 108개의 활성화된 서점과 비활성화된 서점 중에서 참여 의지가 확고한 담당자들과 바로대출제에 적극적인 소수의 이용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바로대출제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도서관과 지역서점, 이용자의 불만 사항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3 바로대출제 취지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회 개최 및 홍보

설문조사 결과 도서관과 서점에서는 이용자의 복본 위주의 도서 신청, 일부 이용자의 독점 이용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바로대출제의

취지는 소규모 지역서점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며 동시에 도서관에 책이 정리되는 시간을 줄이고, 동네 곳곳에 위치한 지역서점을 통해 희망도서를 직접 접하게 하여 이용자의 신속성, 편리성을 추구하는 창의적 서비스이다. 이러한 취지와 달리 일부 이용자들은 본인이 이용하는 책값을 도서관이 지출해 준다는 인식만으로 도서관에 이미 소장된 도서를 신청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은 시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바로대출제의 취지를 홍보하고 선정 기준에 제한이 필요한 이유, 도서구입 예산에 제한이 있는 이유, 지역서점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설명회를 통해 바로대출제 신규 이용자 확보도 가능하다.

4.4 도서구입비 대비 바로대출제 도서구입비에 대한 연구 및 기획 수집

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희망도서와 바로대출제 희망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도서관 장서 구입의 주체는 사서라는 사실이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도서관에서 바로대출제를 통한 희망도서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이용자의 의견이 장서에 반영되지만, 장서 구성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분야로만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의견에서 여러 차례 제시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공공도서관의 전체 도서구입비 대비 희망도서구입비와 바로대출제 구입비의 비율은 공공도서관마다 적게는 23.3%, 많게

는 60.9%를 차지하고 있었다. 도서관 장서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 바로대출제의 예산을 일정 부분 확대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도서구입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식범주별로 양서를 채워나가야 한다. 향후 도서관의 양서 구입 확산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대비 적정한 희망도서구입 비율, 그리고 바로대출제 도서구입 비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바로대출제 기획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5 바로대출제 관련 규정 제정

이용자는 바로대출제 도서 선정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도서관마다 선정 제외 기준이 달라서 어떤 도서관에서는 선정하고 어떤 도서관에서는 선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선정 제외 기준이 도서관마다 조금씩 달라서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선정 제외 기준을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지만 가치판단이 필요한 선정 제외 기준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원칙 큰 틀 안에서 기준이 마련되어 바로대출제를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같은 시군 안의 도서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공공도서관 바로대출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최소한 같은 시군 안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즉, 바로대출제를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바로대출제 구입 희망도서에

대한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만들어 지역서점과 이용자의 혼선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4.6 바로대출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독서문화서비스 기획 및 실행

설문조사 결과 바로대출제 이용자를 상대로 다양한 독서활동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독서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역서점을 거점으로 바로대출제 이용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독서동아리 사업이나 독립서점 출판물 전시 등의 독서문화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대출제 예산은 연말 이전에 이미 소진되는 시군이 대부분이므로 독서동아리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 이용자를 상대로 독서동아리 사업이나 독서문화서비스 등을 기획하여 실행한다면, 바로대출제 3개 주체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독서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4.7 바로대출제의 건전한 이용자층 확대 및 다양한 지역서점의 육성

지역서점이 바로대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가장 주요 이유는 바로대출제를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이용자와 바로대출제를 독점 이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신청했던 책은 도서관에 납품할 수 없고 그대로 지역서점의 재고로 쌓이게 되어 지역서점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서점의 재고 도서를 구입해준 도서관도 있고 일부 도서관은

바로대출제 오·남용 이용자에 대한 신청 제재 기간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오남용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건전한 이용자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서점의 위치에 따라 바로대출제 이용자가 많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서점의 위치와 접근성에 따라 지역서점 간 매출의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서점 간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바로대출제 이용자가 지역서점을 방문해서 다양한 관련 도서를 접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취지인데, 교과서나 참고서를 주로 다루는 서점은 바로대출제 신청도서 이외에는 추가 구입을 유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특정 주제의 도서로 특화된 지역서점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서점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독서문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공공도서관 바로대출제 운영위원회는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하고, 바로대출제의 취지대로 서비스를 지켜 나가야 한다.

5. 결 론

바로대출제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서의 창의적 발상,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협력, 바로대출제 시스템이라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서점의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서비스이다. 공공도서관은 위기에 빠진

지역서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도서관과 지역서점은 협력하여 책읽는 독서문화를 조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가 커짐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작된 바로대출제는 점차 확산되었고 긍정적인 신문기사가 많이 실렸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도서관, 서점, 이용자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였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바로대출제를 통한 중복도서 구입으로 인한 장서의 질 저하를 우려하여 바로대출제 서비스를 무한정 확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서점은 위치에 따라 이익 편중이 발생하였고, 이용자가 증가한 만큼 부수적 업무도 증가하여 대부분 소규모 지역서점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용자는 서비스와 예산 확대와 무리한 요구까지 하는 상황이었다.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도서관, 지역서점, 출판사 등 독서생태계가 협력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상생과 협력이야말로 독서생태계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창의적 협력 방안인 바로대출제는 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대, 도서관, 지역서점, 이용자 간의 지속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 도서구입비 대비 바로대출제 희망도서 구입비 연구를 통한 기획수집, 바로대출제 관련 규정 제정, 독서문화서비스 기획, 건전한 이용자층 확대, 다양한 지역서점 육성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강은영 (2016).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의 쟁점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231-257.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6.231>
- [2] 경기도 (2021). 2021 경기도 공공도서관 연감.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3] 구동연, 유승호 (2020). 독립서점의 가치적 전환에 관한 연구: 2010년대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3(2), 3-35. <http://doi.org/10.36234/kace.2020.23.2.3>
- [4] 노미령, 정경운 (2020). 지역 독립서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과문화, 7(2), 85-111. <https://doi.org/10.26654/iagc.2020.7.2.085>
- [5] 송인노 (2021.10.14.).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파헤치기. 2021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 제7차 사서릴레이대토론회.
- [6] 신종락 (2007). 독일 출판산업의 동향과 전망. 한국출판학연구, 52, 201-236.
- [7] 윤희윤 (2005).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전략적 제휴방안 모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4), 139-161. <https://doi.org/10.4275/KSLIS.2005.39.4.139>
- [8] 이수진, 오재호, 조성한 (2017). 경기도 지역서점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정책연구, 1-184.
- [9] 이용재 (2009)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5-23. <https://doi.org/10.16981/kliss.40.3.200909.5>
- [10] 정윤희 (2019). 책문화생태계 관점에서의 출판정책, 도서관정책, 독서정책 비교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15, 69-104.
- [11] 정준민 (2018). 출판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21-51.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12.21>
- [12] 한국서점조합연합회 (2016). 2016년 한국서점편람. 서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 [13] 한주리 (2017).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활동인력 운영 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3(4), 267-298. <http://dx.doi.org/10.21732/skps.2017.80.267>
- [14] 한주리 (2020). 지역의 독서생태계를 위한 지역서점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46(6), 105-128. <https://doi.org/10.21732/skps.2020.97.105>
- [15] Arthur, M. A. & Sieck, S. (2015). Cooperation is key how publishers and libraries are working together to achieve common goals. *Against The Grain*, 27(6), 23-23.
- [16] Bahr, A. H. & Bolton, N. (2002). Share the experience: academic library, public library, and community partnerships. *The Southeastern Librarian*, 50(2), 26-32.
- [17] Bell, S. J. (2017). What about the bookstore?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78(7), 375-377.

- [18] Coffman, S. (1998). What if you ran your library like a bookstore? *American Libraries*, 29(3), 40-47.
- [19] Fister, B. (2008). What if you ran your bookstore like a library? *Library Journal*, 133(7), 30-35.
- [20] Kirschner, J. & Miller, H. (2021). The Perfect mix: leveraging library collections and bookstore partnerships for textbook affordability. *VCU Libraries*.
- [21] Kohl, D. F. & Sanville, T. (2006). More bang for the buck: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library expenditures through cooperation. *Library Trends*, 54(3), 394-410.
- [22] Mercieca, P. (2000). The Publisher and the library: converging professions or the start of the true hybrid library. *VALA 2000 Program*.
- [23] Rockman, I. (2001). Managing partnerships with university support units, 67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16-25 August.
- [24] Ward, M. & Lavoie, J. (2016). A library-publisher partnership for open access: building an innovative relationship between scholarly publishers and academic libraries. *Liber Quarterly*, 25(4), 189-204.

[웹사이트]

- 김찬호 (2020. 12. 7.). 동네서점 바로대출제를 아십니까? 주간경향, 1405호.
출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011271552411&pt=nv>
- 박경만 (2017. 2. 3.).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전국 지자체 도입 붐. 한겨레 신문,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area/781232.html>
- 신남희 (2020). 희망도서바로대출로 동네서점을 살릴 수 있을까
출처: <https://blog.naver.com/khhan21/22179667252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Eun-Yeong (2016). Current issues and future tasks for book purchases in public libraries by fixed book pr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231-257.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6.231>
- [2] Gyeonggido (2021). 2021 Gyeonggido Puplic Library Yearbook. Suwon: Gyeonggido Cyber Library.

- [3] Ku, Dong-Yeon & Ryu, SeungHo (2020). A study on the value-turn of independent bookstores: based on the 2010s. *Review of Culture and Economy*, 23(2), 3-35.
<http://doi.org/10.36234/kace.2020.23.2.3>
- [4] Noh, Mi Ryeong & Jeong, Kyung-woon (2020). A study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local independent bookstores and methods to vitalize the bookstores: focused on local independent bookstores in Gwangju. *Journal of Region & Culture*, 7(2), 85-111.
<https://doi.org/10.26654/iagc.2020.7.2.085>
- [5] Song, In-No (2021.10.14.). Making a thorough investigation local bookstore direct loan service for users' requests in public libraries. The 7th librarian relay debate at the KLA National 2021 Conference and Exhibition.
- [6] Shin, Jong-Rak (2007). Publishing industry trend and outlook in Germany. *Studies of Korean Publishing Science*, 52, 201-236.
- [7] Yoon, Hee-Yoon (2005). On the strategic alliance between libraries and publisher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4), 139-161.
<https://doi.org/10.4275/KSLIS.2005.39.4.139>
- [8] Lee, Soo-Jin, Oh, Jai Ho, & Jo, Sung-Han (2017). A study of actual conditions and vitalizing strategies for local bookstores in Gyeonggi-Do. *The Journal of Policy Studies*, 1-184.
- [9] Lee, Yong-Jae (2009).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and communities through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5-23. <https://doi.org/10.16981/kliss.40.3.200909.5>
- [10] Jeong, Yunhee (2019). Study on publishing, library, reading policies analysis from book culture ecosystem perspective. *The Journal of Culture Contents*, 15, 69-104.
- [11] Chung, JunMin (2018). A library as a publishing platform: on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libraries and publisher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21-51.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12.21>
- [12] Korea Federation of Bookstore Association (2016). 2016 Handbook of Korean Bookstores. Seoul: Korea Bookstore Federation.
- [13] Han, Julie (2017). A study on strategies for activating book-reading environment through the volunteers' participation. *Studies of Korean Publishing Science*, 43(4), 267-298.
<http://dx.doi.org/10.21732/skps.2017.80.267>
- [14] Han, Julie (2020). A study on the role and activation of regional bookstore for reading ecosystem in the local community. *Studies of Korean Publishing Science*, 46(6), 105-128.
<https://doi.org/10.21732/skps.2020.97.105>

